

현대지에프홀딩스 출범... 매출 40조 '비전 2030' 속도

현대백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정지선·정교선·장호진 이사회 합류
지분 보유·관리하는 '순수 지주회사'
백화점그룹 내 27개 자회사 편입

현대백화점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출범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완성하는 동시에, 오는 2030년까지 매출 4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중인 '비전 2030' 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8일 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각각 열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이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이사회에 합류해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장호진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사장과 사내이



정지선 회장

정교선 부회장

장호진 대표이사 사장

사에 선임돼, 정지선 회장과 함께 현대지에프홀딩스대표이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에도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며, 지주회사 대표이사를 맡게 된 장호진 사장은 현대백화점과 한섬 등 주력 계열사의 사내이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명인 현대지에프홀딩스(HYUNDAI G.F. HOLDINGS)는 그룹 전체 임직원들이 100년 그 이상 지속되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새로운 역사와 미래(Future)를 만들어 나가는(Generate)데 중

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대지에프홀딩스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서 유통·패션·식품·리빙 등 기존 사업을 미래 성장형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그룹의 성장 방향성에 부합하는 신수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속 성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지를 사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아우르는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이 현물출자에 참여해 지주회사 지분 38%와 28%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이날 공식 출범한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가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순수 지주회사로, ▲유통 ▲패션 ▲식품 ▲리빙·인테리어 등 현대백화점그룹 내 27개 자회사(국내 기준)를 편입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내 자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와 각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재무·투자·사업개발·법무·홍보·인사 등의 경영자문과 업무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단일 컨트롤 타워로서 그룹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와 투자 및 리스크 관리도 맡게 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미래사업이 될 신사업을 발굴해 성장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수·합병(M&A)도 추진하게 된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산(별도기준)은 약1조5000억원으로, 조직은 3실(경영전략·홍보·DT추진), 3담당(미래성장전략·사업개발·재무전략), 11팀(재무전략·재정기획·투자기획·투자관리·법무기획·사업개발·경영개선·인사기획·홍보·DT전략)으로 구성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투명하고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제인 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그룹의 경영 효율화는 물론,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는 자회사들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체제 구축으로 경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각 계열사간 시너지 또한 극대화돼 '비전 2030' 달성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또한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출범을 계기로 주주 가치 제고와 주주권의 극대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경우 대표적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리잡은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으며, 그룹 내 모든 상장사가 참여하는 통합기업설명회(IR)도 매년 정례화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초 13개 상장사 재무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그룹 가치제고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며 "앞으로 배당 확대와 무상증자 등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조립식 주택 사러 편의점 가요"... 이마트24, 판매 개시

YMK종합건설과 업계 최초 론칭
15평형·복층 20평형·25평형 3종
전국 매장서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노래방박스, 스크린골프박스 등 상식을 깨는 이색 상품을 선보였던 이마트24가 이번에는 '주택'을 판매한다.

이마트24는 종합건설사인 YMK종합건설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조립식 주택'을 이달 말까지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전국 이마트24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 시 남긴 연락처를 통해 '3D 모델하우스'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이 전송된다.

고객들은 3D 모델하우스에 접속해 주택 내·외부 모습을 둘러보고, 전문 상담원과 상담 후 결제하면 된다. 결제 완료 후, 설계와 인허가 기간을 제외하면 빠르면 2개월 안에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이루어진다.

이번에 선보이는 '조립식 주택'은 방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조립식주택의 3D모델하우스 화면 캡처.

/이마트24

2개, 화장실, 거실, 테라스, 주방, 다용도실이 단층으로 구성된 15평형(약 1억 3000만원), 복층으로 구성된 20평형(약 1억 7000만원)과 25평형(약 2억원) 등 총 3가지다.

해당 상품은 본인 소유의 허가된 토지가 필요하며, 구매자가 수도·전기·정화조연결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 고객들은 상담을 통

해 주택 내·외부 디자인, 공간 구성 등을 고객 취향에 맞춰 변경도 가능하다.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조립식주택은 벽, 지붕, 바닥 등 주택 구성요소를 사전 제작 후 고객이 보유한 토지에서 현장 조립하는 '패널라이징 공법 주택'이다. 이러한 방식의 건축공법은 건축시간과 비용,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일반 주택대비 내진·단열·내화 성능이

높아 친환경적인 차세대 건축공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마트24는 워케이션(Workation, 일하면서 휴가를 즐김)이나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 거주)과 같은 새로운 주거 문화,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 방식 등이 확산되는 데 주목해 세컨드하우스로 활용 가능한 '조립식 주택'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편의점이 종합건설사와 함께 단독주택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24는 앞서 수입차, 노래방박스, 스크린골프박스, 전기차 등이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성공 체험을 한 만큼, 이번 조립식 주택에도 고객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편의점이 먹거리, 의류뿐 아니라 주택까지 선보임으로써 고객의 의식주를 해결 할 수 있는 근거리 생활플랫폼 이미지를 구축하고, 가맹점의 매출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SSG닷컴 '크리스찬 디올 뷰티' 한정판 컬렉션 단독판매

SSG닷컴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뷰티'의 한정판 컬렉션을 국내 단독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등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럭셔리 브랜드 한정판 상품을 선보여 고급 선물 수요를 겨냥했다.

크리스찬 디올 뷰티의 메이크업 라인인 '백스테이지'의 다양한 신상품들로 구성된 '홀리데이 컬렉션'은 브랜드 자사물 외에는 모든 유통채널을 통틀어 싸냥닷컴에서만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한정수량 소진 시까지만 판매된다. /최빛나 기자

G마켓 '빅스마일데이 스페셜딜'

G마켓이 오는 19일까지 '빅스마일데이 스페셜딜'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휴 브랜드사 인기 상품 10종을 단돈 100원부터 최대 46% 할인 등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정수량 판매한다.

스페셜딜은 G마켓이 진행하는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 전용 제휴 이벤트로 ▲쏘카 ▲넥슨 ▲클래스 101 ▲세탁특공대 ▲CGV ▲베스킨라빈스 ▲메가박스 ▲KFC ▲서브웨이 ▲티웨이항공 등 총 10개 파트너사가 참여한다. 행사가 종료되는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선착순 판매하며, G마켓 고객이려면 누구나 구매 가능하다.

먼저, 100원당 상품을 선보인다. '쏘카 24시간 대여 9900원 쿠폰', '넥슨 워헤이븐 2만원 상당 아이템', '클래스 101 1개월 구독권' 및 '세탁특공대 최대 2만원 할인 쿠폰팩' 등 생활밀착형 상품이 풍성하다. /최빛나 기자

홈플러스, 킹크랩 반값 '메가푸드위크'

오늘부터 29일까지 3주간 행사

홈플러스는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플러스 메가푸드위크(MEGA FOOD WEEK)' 행사를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 메가푸드위크'는 지속되는 물가 분위기 속에서 고객들의 쇼핑 부

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운영하며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 홈플러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식품은 물론 비식품까지 최대 50% 할인 또는 1+1에 판매한다.

특히 주말에 장을 보는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까지 '주말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주 주말특가에서는 11~13일 '보리 먹고 자란 캐나다산 삼겹살, 목심(이하 보떡돼)'과 9~12일 '호주산 안심'을 대형마트에서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반값에 선보인다. 9~12일에는 '킹크랩', '흰다리새우', '초간편 만능 대패삼겹살', '국내산 민물장어', '락앤락 더블랙&핸디 프라이팬 시리즈 전품목' 등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반값에 만나볼 수 있다. /최빛나 기자



모델들이 8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플러스 메가푸드위크'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